



지난 16일 '제 49대 남가주교협 회장단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교협 임원들이 특송을 했다.

## 남가주교협 이취임식 열고 사랑 나눔 운동 전개

“혼란한 시대, 사회 자정을 촉구하는 교협 되길”

지난 16일 주일 오후 4시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한기형 목사)는 찬양교회(김성대 목사)에서 '사랑나눔 송년음악회' 및 '제 49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1부 순서로 진행된 '예배 및 이취임식'은 김성대 목사(목사회 부회장)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객관섭 목사부회장(예은교회)이 기도하고 김순옥 목사부회장(스탠튼교회)이 성경봉독했다. 이어서 이경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목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사랑의 나눔 운동'을 위한 헌금, 최대현 장로부회장(시온교회)의 협회기 이상식, 공로패 증정, 한기형 회장의 신임 회장단 소개 및 특송, 제임스 안 한인회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회장 서영석 장로와 3.1절 10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권영신 장로의 축사, 안산기 총무(한사랑교회)의 광고, 찬송, 류당렬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한기형 목사는 인사말에

서 "교협은 올해로 49년을 맞이하여 50년을 앞에 두고 있다. 특히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100년전 크리스천 애국자들이 순교함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정신을 이 시대에 새롭게 접목시키는 의미있는 해"라며, "이웃을 돌보는 일에 교협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임스 안 이사장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는 늘 교계가 앞장서 사회의 자정을 촉구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것이 우리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교협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또한 그는 한기형 목사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이겨내시는 주요 지도자 중의 한분으로, 교계의 단합과 부흥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서영석 LA협의회 회장은 "이민자로서의 고단한 삶의 여정을 펼쳐가는 동포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업을 펼치는 교협이 되주시길" 바란

고 축사했고, 권영신 장로는 "교협이 지역사회에 3.1운동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남가주 교협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 나눔 운동'을 시작한다. 2부 순서 '사랑나눔을 위한 송년의 밤 음악회'에서는 정대철, 김수정이 사회자로 나섰고 김향로 장로 분회이사장(충현선교회)이 개회기도를 했다. 이어서 성약 앙상블 '보렐레스티'가 월드드즈니사의 라퐁젤의 "See the Light"을, 색소폰 앙상블 'LA색소폰 나라'에서 루이스 레만도프스키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준실 테너가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의 "오솔레미오와 아돌프 아당의 "오 홀리나잇"을, 에버그린 여성합창단이 임금수 곡 "주의 옷자락"과 로리 클라인의 "사랑해요"를, 조은아 소프라노가 알버트 헤이 팔롯의 "주의기도", 조아키노 로시니의 "라프로메사"를, 혼성찬양팀이 "예수님이 좋아 좋아", 돈 베식의 "매일 주만 섬기리"를, 연합찬



12월 13일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후원의 밤이 열렸다.

## 2018년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MU) 후원의 밤

90여명의 후원자들과 동문들 참석

12월 13일 목요일 플러틴에 위치한 맥켄텔러 문화센터에서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 후원의 밤이 열렸다.

90여명의 후원자들과 동문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규남 총장은 이번 후원의 밤의 의미를 전하며 "인본주의 신학으로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시대에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학교로 성장하기 위하여 양질의 교육과 세계선교와 목회자로 헌신한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모금된 34만불 후원금은 한인 다음세대와 세계 선교지도자

들을 위하여 영어과정에 더 많은 투자와 장학금으로, 한인교회와 여성사모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봄학기부터 시작될 상담학학사(BA)과정, 상담학석사(MACC)과정 개설을 위해, 선교학박사(DMiss)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CS)과정을 통한 한인세계선교사 지도력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 GMU 이사 최홍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GMU이사장 한기홍 목사의 격려사와 국제총회 총회장 신승훈목사의 축사, 국제총회 경총회장 이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양팀이 웬델의 "할렐루야"를 선사했고, 한기형 회장의 인사 및 폐회 기도도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제 49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한기형, 공동회장 김낙인, 민중기, 박헌성, 신승

훈, 이종용, 목사부회장 김성대, 객관섭, 김순옥, 김영석, 이병상, 이석부, 차승재, 장로부회장: 최대현, 이병만, 권사부회장: 임경해, 총무 안신기, 기획총무 이경호, 회계 양석용, 토마스 맹기자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9**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유학생 특별 장학금 대학과정 정부 학자금 혜택**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1.7 (월) 오전 10시 OC 상담심리대학원  
 734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1.8 (화) 오후 7시 LA 본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신학, 상담학, 음악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NGO사역 (수료증 과정)

**나를 변화시키는 대학**

문의 | admissions@wmu.edu | 213.388.1000 | www.wmu.edu

#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선 선교사 훈련 필요해”

## GMS 미주 OMTC 선교사 훈련생 6기 모집



이병구 선교사

한국 최대의 선교단체인 총회 세계선교회 GMS(Global Mission Society)가 미국에서 전세계를 향해 나아갈 한인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G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세운 선교단체로 현재 98개국에 2,56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 신학적 성향은 보수적이지만 선교에 대한 접근법은 개방적이라고 동안 선교사 자격에 목사와 평신도 구분을 두지 않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훈련, 파송해 왔고 특히 '전세계 이민자가 모이는 미국이 선교지'라는 관점에서 미주에도 해외 선교사 훈련원인 OMTC(Overseas Missionary Training Course)를 통해 장기 선교사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GMS 미주 OMTC는 오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4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레이시미션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에서 4주간 합숙하면서 GMS 선교사 6기 훈련을 실시한다. GMS 이사, 선교학 교수, 현장 선교사 등 수준 높은 강사진들이 선교 신학, 리더십, 후원교회 개발, 타문화권 이해, 세계선교 동향, 21세기 선교전략 등 선교의 필수 과목들을 가르친다. 1인당 등록비가 4주간의 숙식을 모두 포함해 1,500 달러이며 등록 마감은 1월 21일이다. 또한 사

정에 따라 이번 훈련에는 부분적으로도 참여하고 내년 가을에 추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GMS 선교사 파송 자격을 얻게 되고 파송교회가 있거나, 자비량 선교를 원하면 바로 임명과 파송을 받게 된다. 미주나 해외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타 교단 목회자나 평신도들도 훈련 신청이 가능하다. 미주 OMTC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으면, GMS 장기 선교사가 된다.

또한 본부로부터 행정적 도움을 받으면서 정식 GMS 선교사로서 전세계 GMS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다양한 후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정감 있게 사역할 수 있다. 특별히 지난 10월부터 미주 GMS OMTC가 중남미를 위한 정식 GMS 훈련원으로 승격이 됐다. OMTC가 중남미 장기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 및 파송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남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훈련을 받았어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후 바로 선교사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미주 OMTC 훈련원장인 이병구 선교사는 “최근 미주 지역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는 것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일터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로 설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선교사였다”고 말한다.

“장기로 선교를 나가는 경우 4년 이상을 기간으로 보고 있고, 부부가 훈련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즘은 중남미 지역,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로 많이 나가는데, 북미주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있다. 현재 중남미의 한국 선교사들을 보면 굉장히 고령화가 되었다. 그래서 1.5세나 2세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훈련도 고려하고 있다. 북미주 자원이 중남미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플랫폼이 훈련원의 목적이랄 수 있다.”

이 선교사는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이다. 이 땅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교사 훈련이 필요하다. 꼭 해외 선교를 나가야 한다고 일터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GMS에서는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바쁘면 한 두 주라도 참석하고 크레딧을 쌓아 나가면 된다. 여태껏 훈련을 수료하고 좋은 피드백을 나누는 분들이 많다. 좋은 선교학 강의와 필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바뀌기도 한다.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714-614-3666, igmc21@gmail.com

# “2018년은 모두 다 은혜이고 감사한 해”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16일 저녁 6시에 남가주베델교회에서 50여명이 모여 2018년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다.

미주예성(예수교미주성결교회 약칭)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12월 16일(주일) 저녁 6시에 남가주베델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50여명이 모여 2018년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송년의 밤은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교역자 및 가족들이 함께 해 만찬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는 송년 감사예배, 3부는 송년특별행사로 진행됐다.

송년감사예배는 최낙현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의 사회와 김규진 장로(장로 부회장, 남가주베델교회)의 기도, 박용덕 목사(미주총회 총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의 설교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회장인 오병익 목사(남가주베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 목사는 2018년은 모두가 다

은 다감이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다감이란? 다 은혜이고, 다 감사한 한 해이다”라고 말했다.

강양규 목사(부회장, 남가주새언약교회)가 진행한 제3부 송년특별행사는 지방회장 오병익 목사(남가주베델교회)의 송년 및 신년인사와 참석한 모든 가족들의 소개 및 덕담, 양홍규 목사(굿프렌즈교회 담임)의 레크레이션 순서가 있었다.

또한 각 지교회와 지방회, 총회를 위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가 폐회기도를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서남지방회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쌀과 라면 등 생활필수품과 화장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커피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주었다.

## 성탄축하파티 및 제19회 장애인가족 장학금 수여식

지난 19년간 장애인선교를 위해 헌신해 온 샬롬장애인선교회(Shalom Disability Ministries)는 금년에도 성탄을 축하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오는 20일(목) 오후 6시에 더원뱅크에서 '성탄축하파티 및 제 19회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되며, 6시 30분에 시작되는 1부는 성탄축하예배 및 장학금 수여식, 2부 성탄축하만찬, 3부 레크레이션(진행 : 이창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열리며 장학금은 직

계가족 중 중학교 이상 대학원 재학 중인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자녀를 둔 이들에게 주어진다.

■ 행사내용 : 1부 - 성탄축하예배 및 장학금 수여식 (6시 30분)  
2부 - 성탄축하만찬  
3부 - 레크레이션 (진행 : 이창묵선생님)

■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오후 6시

■ 장 소 : AROMA WILSHIRE CENTER 5층, "The One Banquet"

■ 주 소 : 3680 Wilshire Blvd. LA, CA 90010 (Wilshire + Serano) ■ 대 상 : ① 행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 에브리데이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www.churcheveryday.org

- Worship Hours
  - Sunday 주일예배
    - 8:00am - 1부
    - 9:30am - 2부 / 교육부
    - 11:00am - 3부 / 교육부 / 향기마을
    - 1:00pm - 4부(청년부)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 9:30am / 11:00am Sunday (교육관 Education Center)
  - Wednesday 수요일
    - 7:30pm - 수요기도회 / Awana (Kidz Church)
  - Mon~Sat 월요일~토요일
    - 5:30am - 새벽기도회
- Address
  -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 Office: 818-832-6628
  - Fax: 818-368-0089
  - info@ChurchEveryday.org

#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장애우사랑교회가 어르신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를 지난 15일 오전 10시 중앙양로병원에서 개최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어르신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가 열렸다.

장애우사랑교회(오진형 목사)가 어르신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를 지난 15일 오전 10시 중앙양로병원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8번째 열리는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는 제25회를 맞았다. 올해로 23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고 있는 장애우사랑교회는 육신의 질병과 외로움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1년에 두 차례씩 찬송가 암송해 부르는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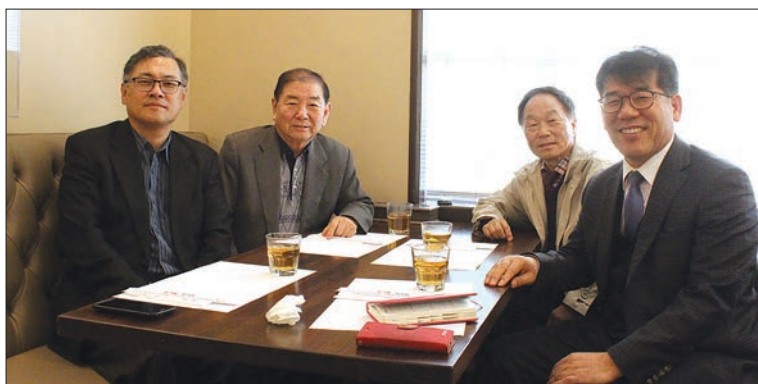
주최측은 “참가자들이 찬송가를 외워 부르며 치매와 같은 질환도 개선되고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건강의 축복과 전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찬송가 경연대회는 오진형 목사의 인도로 마동환 장로가 지도하고 필그림오케스트라&이재욱 단장과 단원들의 특별공연 후 이현수 목사(하와이연합그리스도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요3: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진형 목사의 광고 뒤에 김현국 목

사(한미동맹협회 자문위원 동부 책임 담당)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열린 찬송가 대회에는 총 16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을 암송해 찬양하고 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찬송가 경연대회는 장애우사랑교회 주최로 나성순복음교회, 마동환변호사 그룹, 뉴욕제과, 팔가순대국, 은혜한인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침반교회, F.H.M 선교회, 천사매실원, Cafe Bene가 협력했으며, Sanny's 겨우살이가 특별후원했다.

# 남가주교협 · 남가주목사회 임원들 협력 다짐 “연중 연합행사에 협력해 나갈 것”



(왼쪽부터) 교협 안신기 총무, 한기형 회장, 목사회 김관진 회장, 강태광 간사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모색했다. 지난 18일 오전 뉴서울호텔 식당에서 남가주교협 한기형 회장과 남가주목사회 김관진 회장이 한 자리에 앉았다. 지난 11월에 각각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두 회장들은 이미 서로의 취임을 축하하며 손을 잡았다. 먼저 남가주목사회가 신규 임원 교체식을 가진 조찬 기도회에 한기형 회장이 축도하며 축하를 했다. 이어서 한기형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교협 행사에 김관진 회장이 부회장들 그리고 증경회장들과 함께 참

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다. 남가주교계에는 연중에 이뤄지는 몇몇 연합행사들이 있다. 3.1절 기념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6.25 기념예배, 8.15 광복 감사예배 등이다. 교계 관계자는 “두 기관이 이런 예배와 행사들에 협력하며 서로를 후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사회는 2019년 1월 13일에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가지면서 힘찬 출발을 할 예정이고, 교협도 신년 하례회를 통해서 회장단 활동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 코러스투어클럽과 함께 한 “싱싱여행클럽” 겨울여행



모나코 나비와 겨울바다 기차여행

한인 시니어를 위한 “싱싱 여행클럽”은 지난 12월 8일(토), 한국 노인상조회와 사우스베이한미노인회 회원 80여명이 참가하여 “모나코 나비와 겨울바다 기차여행”을 실시하였다. 기차를 타고 미서부 해안선을 따라 산타바라 피어(santa barbara pier)를 거쳐 피스모비치(Pismo Beach)까지 이르는 여정에서, 회원들은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잔을 마시는 낭만에 흠뻑 젖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피스모비치에서는 알래스카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2천마일을 날아온 모나코 나비가 연출해 낸 진기한 광

경을 보는 추억도 만들었다. 싱싱여행클럽은 “한국노인상조회 회원들이 여행을 다니며 젊은 시절의 싱싱함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하자는 뜻에서 결성한 소그룹”으로, 첫 여행인 이번 모나코 나비 기차여행에 50여명이 참가하였고, 이웃 사우스베이한미노인회 회원 30여명도 함께 했다.

싱싱여행클럽을 결성한 한국노인상조회의 조수용 수석부회장은 “이번 여행을 시작으로 각 지역 시니어 단체들을 합류시킬 예정”이라며 “관심있는 단체들은 조 수석부회장(213-435-3090)에게 연락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인 노인 섬기는 ‘사랑의 점심’ 100회 맞아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 “많은 한인들의 후원과 도움에 감사”



13일 ‘사랑의 점심식사’가 100회를 맞았다.

섬김과 나눔의 마음이 있어도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또 실천한다손 치더라도 지속하기란 더욱 어렵다. 지난 2010년 섬김을 시작한 차레도 거르지 않고 매달 지속해 온 단체가 있다. 바로 방주교회(김

영규 목사)다. 방주교회가 지난 8년간 지속해 온 ‘사랑의 점심식사’가 13일 100회를 맞아, 점차 개인주의 화되어 가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기 쉬운 한인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13일 중앙루터교회에서 열

린 이 행사에는 150여 명의 한인 연장자들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섬기는 가운데, 온정이 담긴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고 선물을 받았다. 김목사는 100회에 이르기까지 같은 섬김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자바시장에서 인연을 맺은 많은 한인들의 후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100번째 사랑의 점심 행사는 CDS카드결제서비스(법인장 김용대)에서 후원했으며, 한인 의료도매업체 ‘패션고’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서 이 행사를 도왔다. 방주교회는 2010년 추석이 있던 9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을 섬기기 위해 이 행사를 시작해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식사’ 행사를 주최해 왔다. “처음 미국에 올 때 홈리스 사역을 위해 왔다”고 말하는 김영규 목사는, “교회 교인이 20명에 불과하던 때, 작은 교회도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싶었다”며,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시작하면 다른 교회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힌 바 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십시오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1/2(수) 5:2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3(목) 5:20am  
강사: 김용훈 목사  
(워싱턴델리문교회담임)



1/4(금) 5:20am  
강사: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1/5(토) 6:00am  
강사: 박수웅 장로  
우리사랑할까요? 저자

**일시: 2019. 1. 2(수)~5(토)**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 2019 HAPPY NEW YEAR 신년축복성회

일시: 2019. 1. 24(목)~27(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강사: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 담임)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일성령집회 8:00pm

www.gracemi.com 150 S. Brookhust Rd. Fullerton, CA 92833 Tel:(714)446-6200, Fax:(714)446-6207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93>

### 한 SM(대학생 선교사) 학생과의 만남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약 2개월 전 샌디에고 지역의 선교훈련에 강사로 다녀왔다. 그곳에서 전지울이라는 여학생을 만났다. 첫 인상은 매우 조용한 느낌, 차분해 보이고 눈빛은 또렷했다. 한마디로 공부 잘해 보이는 학생이었다. 교육을 듣는 내내 진지했고, 무엇인가 진리를 깨달은 듯한 느낌이었다.

다른 학생들도 많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자매였다. 강의 후에 학생들이 자신의 간증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그 자매 차례가 되어 간증을 시작하는 데 크게 숨을 쉬고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넘치는 하고픈 말이 마치 목젖 밑에서 영커 무엇보다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한 간증이다. "휴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칭찬 받는 방법을 일찍 터득했습니다. 어른들이 한결같이 다 칭찬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일등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도 대학생활 내내 All A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졸업반이 되어 공부가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정말 인생의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등의 생각이 내 마음을 놀렸습니다. 그러던 때 캠퍼스에서 늘 밝게 지냈던 한 친구가 내게 다가와 비전스쿨을 권했습니다. 지난 9주간 그 강의를 듣고 성경을 다시 읽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접

차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을 이어 갔다. 그러면서 그 자매의 눈에서는 계속 소리없는 눈물이 흘렀다. 필자는 그 자매가 말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눈물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교제를 하는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격해 하는 그런 가치의 눈물이었다.

그 자매는 너무도 귀한 결단을 그 시간에 했다. 내가 공부한 모든 전공들, 다른 직장이나, 진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찾았다 했다. "저는 먼저 SM으로 주님이 가라시는 열방의 나라에 가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먼저 하겠습니다." 1년을 주님께 먼저 드리겠다고 했다.

필자는 물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가슴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자매의 기도제목들을 같이 중보하는 충만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샌디에고에서 공부를 마친 한 자매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북인도 땅으로 가고자 마음을 정했다. 모든 영광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목자되신 하나님께 올린다.



(사진은 칼럼과 관계가 없습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중세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론(2)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행복론을 수용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행복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행복은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는 궁극적 목적(finis ultimus)입니다. 궁극적 목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아무 것도 바랄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인간의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행복이야말로 인간 삶의 궁극적 요소입니다. 행복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행복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실현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길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영생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영생의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상의 삶에서 행복은 도무지 누릴 수 없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상의 인간이 완전한 행복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중적 행복(duplex beatitudo)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두 가지 행복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알고 권력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하여 재물을 탐하고, 쾌락에 빠져서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동일한 이유로 행복을 위하여 건강과 인생의 영광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었던 8가지 요인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 한계들을 소개합니다. 그는 인간이 지향하는 최고의 선인 행복은 세상적이고 인간적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악행으로 행복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명확한 것은 물론이고 인간들의 선행으로도 행복에 도달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영혼의 충족마저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라고 말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길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영생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영생의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상의 삶에서 행복은 도무지 누릴 수 없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상의 인간이 완전한 행복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중적 행복(duplex beatitudo)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두 가지 행복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생들이 지상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 근사치를 누리는 구체적인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경적 도덕관을 매우 강하게 주장합니다.

### 미드웨스턴 제64회 졸업식, 한국어 과정 19명 학위자 배출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총장 Dr. Allen)의 제64회 졸업식이 캔사스 시티 캠퍼스에서 거행되었다.

12월 7일 열린 졸업식에서는 전체 120여 명의 졸업생 가운데 총 19명(박사 8명, 석사 11명)이 한국어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난 5월에 졸업한 총 18명(박사 6명, 석사 12명)까지 합치면 이번 해에만 37명의 한국 학생이 졸업한 것이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한국부 석사과정 졸업생 3명이 최우수상(Highest Honor)을 수상하였고, 특별히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 디모데 목사의 경우,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박사원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완주함으로써 졸업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 현재 오하이오 콜럼버스의 Young Timothy Christian Fellowship에서 사역 중인 이 디모데 목사는, 한인 주도 다민족 교회의 사역 사



제64회 졸업식이 캔사스시티 캠퍼스에서 거행되었다.

례를 중심으로 지난 40년의 목회 경험을 논문에 잘 반영하여 다민족 교회의 좋은 사례 연구에 기여했다.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ww.mbts.edu)은 ATS(Association of Theologi

cal School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의 인가를 갖추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mbts.edu/ks) 또는 한국부 사무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한국부 사무실: 1-816-414-3754; ks@mbts.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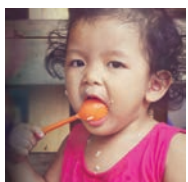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준,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월드쉐어를 후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쉐어는 여러분의 특별한 사랑을 성실하게 전합니다.

애틀랜타와 질병 가운데 있는 아동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협력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코아와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양떼 유익을 위한 신앙지혜

히브리서 13:7-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본문 히브리서 13:7-17

혹 우리 목사님은 독재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양떼를 데려다 맡기셔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이 양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일러줘서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 사명에 입각하여 그 양떼가 제 구실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목자와 더불어 합심협력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해야 합니다.

7절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그 목사의 행실, 즉 그가 설교하던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그가 양떼에게 지시한대로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지를 주의해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 목자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육신의 남은 때와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쓰는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대로 생활을 엮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적소망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생애를 바쳐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와 양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묶어 주신 관계입니다.

한 영혼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해 기도하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 보살피는 것은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책임목회의 사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생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가운데 모세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생활이 곧 여러분들이 죄악세상을 빠져 나와 진리의 교회에 속하여 함께 천국에 가고자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갈 길을 지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더욱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목사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양떼에 대한 주권을 그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고 통솔하여 책임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헤게오마이)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의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1:5-6)"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여호수아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 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3:7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charisma)는 사전적 의미로는 대중을 심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영적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권위란 것은 하나님이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면 모세가 대언하여 말할 때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그 백성에게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영권을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요한복음 21:15-17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하십니

다. 이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하신 것이 '헤게오마이'입니다.

아직도 목사를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할지 여러분의 입장을 따라가야 할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양떼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각기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형편에 맞추어 달라고 자꾸 떼를 쓴다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목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차리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천국가는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는 목적과 방법은 항상 목자를 통하여 영적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힘써야지 육신이 먹고 사는 일 핑계하고 세상에 빠져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핑계 삼아 주일도 지키지 않고 교회에 정해져 있는 각종 예배에 불참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으시, 입으시, 마실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걱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할 걱정일 뿐이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힘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꼭 필요할 때에 챙겨 주시게 되어있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넉넉히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택하신 자기백성을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셨고 그 몸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어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를 찾아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늘소망의 믿음을 가꾸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더 많은 영혼을 하늘나라 가게 하는 성과를 위하여 숨질 때까지 생애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헌신과 희생을 다해야 합니다.

17절은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에게 당신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당신을 진리와 성령으로 깨우쳐서 회개하고 거듭나 구원을 얻게하고 과거에 마귀와 짝하여 죄악을 일삼던 구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씀의 동등이로 때려서라도 다시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회방침에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봉사하여 목자의 손발노릇 잘해서 은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해 오므로 교회가 힘 있게 성장하면서 세계선교에 더 큰 몫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련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한국 헤민병원 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마감일 12월 26일



종합건강센터 이성수 소장

###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 검진비용

~~\$950~~ \$380 \$100 쿠폰구입 \$28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자세한 내용은 213.465.6529 로 문의해 주세요.



### 새일교회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금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760 S.Westmoreland Ave, LA,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 함께걷는교회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 은혜와평강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광덕근 담임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www.pubtheo.org  
T.(310)738-0485



류준영 목사

### 다감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 새소망장로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영어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EM 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요일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정순 담임목사

70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Korean) 626-577-0191, (English) 626-449-8644

### 찬양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EM 성경공부	주일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김성대 담임목사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383-7284

### 롱비치 선원 선교교회

International Seafarers Church of Long Beach

주일예배	오전 11:30분
------	-----------



김만영 담임목사

120 S. Pico Ave, Long Beach, CA 90802  
T.(714) 356-7888

### 2019년 성경통독 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드라마를  
보듯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일독의 효과를 연습합니다.

문의 818-402-3391



김권수 목사

### 만나교회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교회학교	오전 11:00
Youth Group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남강식 목사

4561 W. Pico Blvd, LA, CA 90019  
T. (213)365-6191 www.mannala.org

### 호놀룰루 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삼일밤예배	수요일 오후 7:00
구역별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조일구 목사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USA / T. (808) 947-5252

### 미주양곡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519 S.Western Ave. LA, CA 90020  
T.(213)380-9377

### LA언약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년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고귀남 담임목사

111 N.Virgil Ave. LA, CA 90004  
T.(213)820-0003

### 씨미밸리한인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1부	오전 10:00
주일2부	오전 11:00
화요성경공부	오후 4:00
목요성경공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45



반채근 담임목사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 시온연합감리교회

주일 예배	오전 11시
유초등부	오전 11시
Youth 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	5:30(화~토)



오경환 담임목사

231 E. Lomita Blvd, Carson, CA 90745  
T. (310) 834-5504

### LA 사랑의교회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 (171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 나성평화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서오석 담임목사

14683 Fox St., Mission Hills, CA 91345  
T. 818-365-7777, 213-675-3767

### 영광빛복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 듣기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우대권 담임목사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714) 833-2568

###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18370 S.W.Shaw St. Aloha, OR 97007  
T. (503) 649-3990

###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 한마음 제자교회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광부현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 효사랑 선교회

예수님의 효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평신도 운동 공동체  
2013년 12월 ABC교육감으로부터 감사장 수여 받음  
2011년 11월 Cerritos 시장으로부터 감사장 수여 받음



김영찬 목사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T.(714) 670-8004  
www.hyosarangus.org hyosarangus@gmail.com

###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조웅철 담임목사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VALERO**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기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샘물교회**  
 YOUTUBE 말씀 듣기  
 검색어 "샘물교회 정기정 목사"  
 www.Saemmoor.church  
 Facebook.com/smchurchLA

**코너스톤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주소 및 전화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www.cornerstonetv.com

# “하나님께서 북한 사랑하시고, 그 땅 포기하지 않으셨다”

## 한복협, 12월 모임에서 탈북민 목회자 격려

강추위가 찾아온 한 해의 마지막,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고향을 떠나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4일 서울 도곡동 강변교회(담임 이수환 목사)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익 목사) 12월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에서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격려했다.

이정익 목사는 “탈북해서 이 땅에 오신 목회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탄생했는지 몰랐다. 수십 명에 이르고 대표로 네 분이 나오셨는데 상당한 도전을 주셨다”며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북한 선교에 좋은 잠소가 될 것 같다”고 인사했다.

또 “장차 북한의 문이 열리면 탈북민 목회자 분들이 먼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다시 한 번 북한 선교에 대한 뜻을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복협 측은 이날 참석한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격려금도 전달했다.

앞선 예배에서는 한정국 선교사(KWMA 전 사무총장) 사회로 김경원 목사(한복협 명예회장)가 말씀을 전했으며, 권오륜 목사(말씀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이수환 목사(강변교회)가 ‘남북 간의 평화 실현과 북한 선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옥기 목사(UBF 대표)의 광고와 김명혁 목사(한복협 명예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분단 70년 흘렀지만... 北, 하나님 거룩한 계획 속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 될 수 있었겠나**

발표회에서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마요한 목사(새희망나무교회)가 이야기했다. 준비한 원고 대신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전한 그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분단된지 70여년이 흘렀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북한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 목사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북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들은 일도 없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는 원수로 교육받았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 북한 땅도 사랑하심을 알게 됐고, 그 계획 가운데 쓰임 받고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는 불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왜 우리는 저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야 했을까,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북한에 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깊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 30년간 주체사상과 각종 이데올로기 교육 받았지만 중국서 예수님 소개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믿게 돼

마요한 목사는 “결국 저 어려움과 고통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북한 땅에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 부족하나마 준비하고자 신학을 시작했고, 그 후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마 목사는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받았을 때, 출생 후 북한에서 30년간 교육받은 주체사상과 이데올로기 교육이 마음 속에 견고한 기둥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됐다”며 “진리를 만났을 때, 30년간 교육받았던 사상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을 때 처음에는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도 모르게 짧은 순간 그 분을 믿게 돼 놀라웠다”며 “북한에서는 30년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저 자신이 믿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그는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할 경우 하나님의 때에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요한 목사는 “2001년 중국 군



한복협 목회자들이 탈북 목회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악수와 포옹을 하고 있다.

인들에게 체포돼 복송된 경험이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복송된 후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 북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위부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구나’를 확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독방에서 수개월 취조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셨다고 한다.

마 목사는 “그때 저희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업혀 나오면서, 이러한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기도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살리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했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것이 기적 같았다. 저 같이 불평 많은 사람을 왜 살리셨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 복송 후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 번 만나 다시 살리신 것은 북한을 향한 하나님 계획 때문

그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렷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살린 것은 내가 특별해서도, 너의 믿음이 자랑할 만한 것이어서도 아니라, 그만큼 북한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부족한

저도 사용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탈북해서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겠습니다’는 큰 소원을 품었고, 40여일 만에 몸이 회복돼 다시 기적적으로 재탈북해서 남한에 왔다”고 설명했다.

마요한 목사는 “한국에 온지 17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왜 안 열어주시냐’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준비되지 못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아직 열지 않으신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힘써 준비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마 목사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이 한 민족이지만, 이질감을 갖고 있고 하나 되기 쉽지 않다”며 “대한민국 내 3만 3천 탈북민들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람의 통일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셨다. 7년 전 교회를 개척한 것도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통일’이 복음 안에서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제가 먼저 그 일을 이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다. 지금 작은 교회이지만 탈북민과 남한 사람, 디아스포라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요한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참된 믿음 아래 뿌리박을 때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민족의 통일과 북한의

회복은 복음밖에 답이 없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제 할 일은 통일을 연습하고 함께하는 것이고, 그때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준비 없이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시고 저 북한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은 단지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가 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계획을 감당하라고 우리 민족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북한 땅 회복을 원하신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은 결코 어둡고 고통만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땅이라고 믿는다”며 “12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하는 이 때에, 주님의 오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른 채 동토의 땅에서 믿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북한 땅이 어떻게 변화된 다기보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시리라 는 확신을 갖고 준비하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마요한 목사 외에도 김성근 목사(노원 한나라은혜교회), 송신복 목사(평택 하나비전교회), 강철호 목사(새터교회) 등이 발표했다.

이대웅 기자

#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담임목사 오 병익

## BETHEL CHURCH

### 남가주벤틀엘교회

**예배시간**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일 2째주 주일 오후 5:30분

**562-524-2037**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info@bethelchurchsoca.org



# 주님께서 행하실 복음통일을 세상에 선포하라!



박상원 목사

[편집자 주: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내년 2월에 LA사랑의 빛 선교교회(윤대혁목사)에서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 주최로 2019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 전문세미나와 연합기도회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총무 박상원 목사와 함께 이번 대회의 준비과정과 취지를 들어 보았다.]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통일 사역을 펼쳐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국내외 상황으로 많이 힘드시죠?**

박상원 목사: 예, 그렇지만 이럴 때가 더 선교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세상 권세가 강하고 성도들이 힘들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선교에 집중해야 할 때라 봅니다.

**-집중해야 할 때라는 뜻은?**

지금의 선교상황들이 추방과 제재, 위반 등으로 매우 힘들고, 혼란하고 애매하기까지 하죠. 특별히 한국과 미주지역의 성도님들이 고국의 상황에 다들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질 않으니 답답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즉 이 모든 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까요?**

우리민족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주님의 섭리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은 제헌국회가 시작되고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는 우리의 선조들 중 자유의 복음(갈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을 깨우친 신앙의 선배들이 힘을 합쳐서 일제에 대항했던 삼일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선교사적으로 보아야만,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이 대한민국이 이 거룩한 복음의 확장과 순교의 역사라는 연장선위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섭리와 사명으로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교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쇠하면 나라도 쇠합니다(시33:12,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태동적 사실이 교회의 시작이 복음통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 2월에 LA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개최될 “2019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 전문세미나와 연합기도회 앞두고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의 총무 박상원 목사는 이번 대회의 준비과정과 취지를 설명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가 먼저 시작된 곳은 북한지역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에게서 자유는 얻었는데 (6페이지 “1919 류관순과 그녀들의 조국”(윤학렬 감독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참조하면 알듯이), 그만 다른 두 사상의 대결로 한민족의 참 평화까지는 완수할 수 없었고 분단이라는 긴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복음을 믿은 성도와 교회들이 70년이 넘게 핍박 받고 죽기까지 희생하고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도 위대한 복음이 ‘차별’과 ‘거짓인권’ 등으로 위축받고 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본질 훼손과 교회와 리더들의 타락 등 우리 자체의 죄와 패역입니다.) 모든 일들은 복음이 겪는 과정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북녘과 남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님의 신호에 맞추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주민들을 결국 구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이고, 남한교회와 중국성도들까지 회개와 담합을 부어주셔서 세계선교의 대열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통일 후, 70년 넘도록 복음과 믿음을 지켜낸 지향성도들을 성령님께서 5대왕 6대왕의 전세계로 파송하여, 하나님께서 그 순결한 순교의 증언을 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 민족이 받은 복음통일은 우리 근현대사의 뿌리요,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짜 뉴스들이 싫어하는 참 뉴스(복된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통일전문가들이 이러한 주제와 목적을 각자의 영역에서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미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나요?**

성경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자신의 고국을 구하는 예가 상당합니다. 그때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겠죠.

알다시피 한 사람이 구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여 고국을 구하려고 미스바 기도성회로 모였지요.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은 그들의 라마단 등 성회를 통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러한 상징적인 날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 힘이 없고 사분오열 되고, 이벤트로

모이고 끝나요. 우리들의 약함이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모두 하나님앞에 동등한 자격과 겸손한 자세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역사하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관심을 지닌 분들이 모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기도모임과 교회들의 기도회들 멤버들, 특별히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선교위원들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 기도회에는 각 지역별로 나와서 소개하고 기도하려고도 합니다.

**-북한선교 특별히, 통일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수많은 분야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북한선교, 저는 ‘통일선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매우 전문적이어야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년 전부터 복음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즉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영상, 음악 등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한 플랫폼을 만들어 많은 다양한 분들이 이해하는 좋겠다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마음들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교단의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기 6개월 전에 저에게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미주디아스포라 콘트럴타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완전동의했죠.

**-멤버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임 목사님과 합의 후, 진행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임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는 바람에 큰 충격 속에 잠시 주춤했어요.

그러나, 그 일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경제, 문화, 탈북자청년 대표, 젊은 리더십들과 교육분야)이 생겨나고 합류가 되었어요.

**-임 목사님 2년 9개월 만에 나오셨을 때 관심이 더 커졌겠군요?**

예, 역시 감옥에 갔다 와야 큰 일 하나 봐요(웃음).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서 12명의 통일전문가 네트워크가 이루어 졌어요. 지난 3월 서울에서 결성식을 갖고 몇차례 모임과 기도 후에 이번 모임을 준비하게 되

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멤버인가요?**

일찍부터 목회적인 분야에서 복음통일의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연합에 앞장서서 있는 정성진 목사(거룩한 빛광성교회)와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북한교회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유관지 목사(통일포럼대표), 경제분야에서 통일비용을 산출해 내신 신장민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기독교의 정교도 역사와 한국근현대사와 젠더이데올로기를 연구한 법철학자 이정훈 교수(울산대), 현재 남북공동위원회 시사결정으로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이라는 삼일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윤학렬 감독님과 탈북사역 전문가, 통일헌법학자 그리고 탈북청년대표들과 통일이후 북한아동 심리를 치료하고 계몽할 교육자 등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대회에 모이는군요?**

예, 일정상 다 오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분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사실 ‘모두 자비량으로 봉사하며 헌신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현재 고국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고 계시는 미주 디아스포라 성도님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모든 강사들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정문)를 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미주 전 지역에 홍보하고, 며칠 동안 집회를 하려면 경제적인 면도 필요하지 않나요?**

예, 사실 그분이 신경 쓰이고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준비와 자세도 좀 성경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예산 다 확보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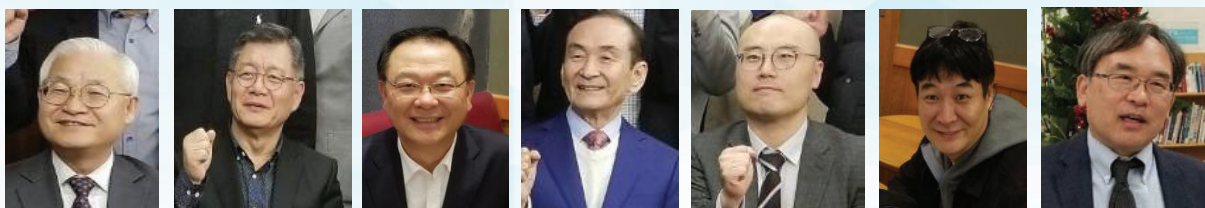
그러나 선교사역은 전방이나 특별히 후방에서의 연합사역도 매순간 긴장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적인 부분도 감동과 은혜를 받는대로 받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처음 여는 집회라 특별히 뜻있는 분들의 후원참여가 소중한 힘과 힘찬 출발이 될 것입니다.

☞ 15면에 이어서

##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전문세미나/연합기도회 개최

“너희는 주님의 복음통일을 세상에 선포하라”

선교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탈북사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복음통일을 선포하고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유관지 목사, 천기원 목사, 강석진 선교사, 김요한 목사, 지미채 선교사, 제임스송 선교사, 조평세 박사 등

- 대상 : 미주 각지역의 성도 및 통일을 기도하는 단체와 기도자들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2시 ~15일(금)
- 장소 :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목사 윤대혁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 문의 : T.(425)775-7477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
- 협찬 : 기독교일보, 사랑의 빛 선교교회

주최 : 국제통일전문가 네트워크

-구체적인 대회 진행방법은요?

오전과 오후는 통일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전문지식과, 사역현장에서 경험한 간증을 세미나와 강의 형식으로 전하려 합니다.

또 강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도제목과 놓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공개집회로 주관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역교회 성도들 모두 초청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함께 받으려 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분들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주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인근지역이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참가비가 따로 있나요?

멀리서 오시는데 참가비까지는 부담드릴 수는 없고, 단지 강의안을 제작하여 드리려고 해서 최소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주지역 교회들을 방문해 집회해 보니, 지금의 상황들을 우려하며 복음통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 간절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자 수년간 기도했던 기도자와 기도회가 큰 연합의 틀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각 전문영역에서의 통일준비내용들과 말씀을 듣고, 그간 자신들의 기도제목들과 활동, 각오 등을 나누면서, 평양대부흥때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기대하며(특별히,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신 전 미주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 멤버들

장신대 총장이신 김인수 교수님의 강의가 예정), 우리 미주의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성도들이 거룩한 연합의 모임을 갖자는 마음들과 복음통일의 기도가 진정된 참가비가 아닐까요?

-끝으로 이번 디아스포라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조국의 어려운 현상과 70년 넘은 분단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간, 진영간, 지역간,

세대간의 반목과 상한 감정들이 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100년 전, 일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삼일운동을 점화시키고 발화시킨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기에 결국 국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지요.

이제, 우리 차례가 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100년전의 각오를 마음에 담고, 자유의 대열을 갖추어 북녘의 동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후손들과 세상 열방들이 복음으로 통일된 주의 나라와 복음의 위대함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 전문세미나와 연합기도대회

2019년 2월 12일(화)~15일(금), LA 파세데나 소재 사랑의빛 선교교회

주최: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INSRK)

강사: 임현수목사, 정성진목사, 고명진목사, 이정훈교수, 신창민박사, 윤학렬 감독 외 10 명의 전문가들이 선교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탈북사역의 분야에서 복음통일을 선포하고,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참여대상: 미주 각지역의 성도들과 통일기도하는 단체와 기도자들

(대회참여 및 후원/협력 안내)

협찬: 기독교일보, LA 사랑의 빛 선교교회

“예수를 비복음적인 산타로 대체하지 말라”

존 파이퍼 “성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Pixabay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예수님의 탄생을 ‘산타클로스’와 같은 비복음적이고 무기력한 신화로 대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최근 'AskPastorJohn' 팟캐스트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

고 산타클로스가 실재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타클로스는 북극에 살고 있고 순록과 함께 날아다니며 나무 아래 선물을 놓고 간다는 신화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실로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Chronicles of Narnia)나 '예수의 비유'(Jesus' parables)와 같은

이야기는 허구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가 창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창작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크리스마스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흐려진다는 것”을 꼽았다.

존 파이퍼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이 왜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는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에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왜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왜 예수님을 산타클로스와 같은 비복음적이고 한심한 신화로 바꾸겠는가? 그 메시지는 아이들

에게 ‘너는 더욱 착해지고 울지 말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어 “산타클로스 신화를 예수님 이야기 위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놀라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문화와 의 혼합주의적인 타협이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산타클로스는 그렇지 않다. 쇼핑물에서 그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산타와 경쟁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진정한 그리스도도 없다. 그들은 이것을 모른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산타클로스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인지 발달 저널'(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연구에 따르면

5세 어린이의 83%가 산타클로스가 진짜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는 성자 니콜라스(Saint Nicholas)로부터 유래했다고 알려졌다. 성 니콜라스(Saint Nicholas)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죽음 이후, 관대함과 선물 나눠주는 것이 전설이 됐다. 그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됐다. 남침례회 웨인 프루잇의 코멘트를 인용해 산타클로스에게 “그는 진짜 사람이 아니지만 예술(영화, 장식 등)을 통해 보는 재미가 있다. 어떤 옵션이 가족에게 가장 적합하든지, 예수님이 최고의 초점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라”면서 “예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 분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조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학장 박성진

- 남침례교단 6대 신학교
- 560명의 한국 학생 재학중
- 1-20 발급 및 장학혜택
- 인턴십 및 온라인으로 진행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 목회상담학박사 (D.Min, in counseling)
- 선교목회학박사 (D.Min, in Missions)
- 설교목회학박사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 가족상담학 석사 (MACO)
- 신학연구석사 (MTS)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눅 2:14)

**사우스베이 목사회**

사우스베이 목사회 일동

**벤츄라교역자협의회**

- 회장 : 남재현 목사
- 총무 : 권혁래 목사

\* 회원교회 \*

- 벤츄라 감리교회(김민영 목사)
- 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
- 새생명교회(승광철 목사)
- 씨미밸리 한인교회(반채근 목사)
- 옥스나드 한인장로교회(김진구 목사)
- 주님의교회(오정택 목사)
- 카마리오 열방교회(권혁래 목사)
-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조인 목사)
-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예수마을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 생명의 말씀사



전인철 대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2 Tim 4:2)



## 풍성한교회



박효우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분(화~토)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381-9490



## GLOBAL IMPACT UNIVERSITY

복음으로 전세계에 임팩트를 주는  
글로벌임팩트대학교 GIU  
글로벌선교연구원 GCMi




총장/원장 김만태 Ph.D

**주소 및 전화**

2975 Wilshire Blvd. B10, Los Angeles, CA 90010  
T.(213) 531-7215, www.gimpactuniversity.org



## 올리브나무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창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0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T.(213) 300-9762